

작품 내용

제 목	씨앗의 뿌리
내 용	예부터 사람들은 말했다. 씨도독질은 못 하는 법이라고. 아무리 남의 밭에서 씨를 훔쳐 와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결국 그 본래의 뿌리가 세상 앞에 드러나기 마련이라고. 생각의 씨앗도 그렇다. 한 편의 글, 한 장의 그림 한 곡의 노래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고뇌로 겹겹이 쌓인 시간은 단단한 뿌리가 되어 그 안에 숨 쉰다. 걸모습은 가벼이 흉내 낼 수 있어도 그 속에 깃든 근원을 달리할 순 없다. 씨앗이 제 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듯 세상에 피어난 작품 역시 만든 이를 기억한다.